

일곱 생각

아이들 친구 엄마, 마을에서 친구가 되어 '수다살롱'을 열다

글. 사진. 최정순(일곱생각 회원)



*일곱생각은 화정동, 행신동, 백석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엄마로 부르며 정을 나누던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 이제 “정화야”, “태화야”, “윤경아!”라고 부른다. 마을에서 친구가 되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된 이들과 수다를 나누다가 더 신나고 재미있는 마을살이를 해보자며 ‘수다살롱’을 오픈했다. 재능과 색깔이 다 달라 ‘일곱생각’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을에서 일을 도모하자고 한 것도 벌써 4년째. 그간 창릉천에 나가 봄벌레 꽃도 심고 물도 주었다. 우리들의 재능과 능력을 시험해보자며 평생학습카페와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여했다.

그 경험을 살려 작년에는 ‘수다살롱’을 오픈하기로 하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였던 시간과 합격을 통보받았을 때 쾌재를 부르던 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설렌다. 수다가 빛어낸 결과물이다. 일면식이 없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마카롱을 만들고 코르사주를 만들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마을에서 마카롱과 코르사주를 만들며 이야기를 이끌어갈 선생님을 찾는 것은 생각했던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사람을 찾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웹자보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아는 카페에 홍보지를 비치하는 일 하나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일곱생각의 수다가 만들어 낸 ‘수다살롱’에 온 마을 사람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 내가 사는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귀하고 기쁜 시간이었다고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웃에게 대문을 열기 힘들어진 시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편해진다는 의미다.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과 마음이 있는 곳이 된다면 우리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일곱생각은 오늘도 마을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수다살롱’을 꿈꾼다.

늘해랑

우리 함께 마음의 손 잡아봐요~ 늘해랑의 세상 돋보기

글. 사진. 한혜정(늘해랑 회원)



늘해랑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자 해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고양시 문해교육사 모임이다. 글은 알지만, 급변하는 환경, 언어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학습과 신체적 활동, 가까운 이웃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도와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 어르신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체 건강일 것이다. 이를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 활용 방법을 알려드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야 될 것(많이 웃기, 칭찬하기, 감사하기, 물 많이 마시기 등)과 하지 말아야 될 것(가르치려는 말투, 화냄, 편식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로당·노인회관에 가지 않으시고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께 다가가 주위 분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었다.

늘해랑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선정돼 활동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마기간에는 쏟아지는 비로 하늘만 쳐다봤고 장마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복병에 부딪혀 행사, 모임, 교육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선 근처 공원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을 유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갖자고 했다.

현수막을 붙이고 노래와 춤, 웃음치료를 진행하니 주변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다 물으시는 분들, 쭈뼛거리는 어르신들을 모셔와 마스크 걸이도 드리면서 몸동작을 같이하니 서너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날짜를 두고 여러 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조금씩 늘어났다. 처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르신들께서 거부감 없이 동참하시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당이 열릴 것만 같다.